



2015학년도 2학기 수강신청 시행안내

4학년 : 출입무예자 : 2015.08.04(화) 10:30~17:00 2학년 : 2015.08.06(목) 10:30~17:00
3학년 : 2015.08.05(수) 10:30~17:00 1학년 : 2015.08.07(금) 10:30~17:00
다전공자 : 2015.08.10.(월) 10:30~17:00
전학년 : 2015.08.11.(화) 10:30~17:00 / 캠퍼스 간 교차수강, 재수강 신청 가능



서울캠 대운동장,
알아보시겠어요?

서울캠퍼스 SPACE21 사업에 따라 대운동장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기존 대운동장에 존재했던 스탠드와 본부석, 농구코트 등은 모두 철거된 상황이다. 현재 대운동장 주변은 펜스로 가려져 있어, 앞으로 달라질 풍경이 궁금해진다

Newsmaker

유니버시아드 첫 수영종목 메달
유현지 (스포츠지도학 2013) 양



“꼴등이라고 생각, 이 악물어 메달 목에 걸었다”

장연수 기자 ys0501994@khu.ac.kr

2015 광주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가 12일 간의 치열한 경쟁을 끝으로 한 채 지난 14일 막을 내렸다. 흥그라운드의 이점을 살려 우리나라에는 금메달 47개, 은메달 32개, 동메달 29개라는 성적으로 하계 유니버시아드 참가 아래 처음으로 종합 1위의 영예를 안았다. 수많은 메달 중에서도 눈에 띄는 것은 ‘수영’ 42개 종목 중 유일하게 거둔 메달이다. 배영 50m 부문에 출전한 우리학교 유현지(스포츠지도학 2013) 양이 그 주인공이다.

자신이 ‘꼴등’이라는 생각으로 결승전에 오른 유 양은 예선보다 더 집중했다. 집중력은 오히려 경기에 대한 불필요한 긴장을 덜어내는데 큰 도움이 됐다. 덕분에 그는 홍콩의 아우 하오이 순 스템파니(AU Ho Shun Stephanie) 선수와 함께 배영 50m 공동 은메달을 거머쥘 수 있었다.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에 참가한 다른 선수들과 달리, 유 양은 사실 ‘일반 학생’ 신분이다. 선수 신분이 아닌 일반 학생 신분이기 때문에 체계적인 훈련과 관리를 받는 다른 선수들에 비해 어려운 점은 없을까. 이에 대해 유 양은 “평소에도 그랬다”는 말과 함께 “학점이 잘 나오지 않는 것 외에는 학업과 운동을 병행하는 것에 큰 무리가 없다”며 털털하게 웃었다. 유 양은 현재 학교 체육부가 아닌 경남체육회 소속으로 있으며, 유니버시아드 역시 경남체육회 소속으로 출전했다.

유 양이 수영을 접한 것은 5살 때다. 이후 9살 때부터 본격적으로 수영을 배우기 시작해 현재까지 수영을 해오고 있다고 한다. 유 양은 “사실 초등학교 이후로 수영을 계속하게 될 줄은 몰랐다”며 “지금은 수영 없는 내 삶이 상상이 안 될 정도로 수영을 좋아한다”고 말했다. 수영 선수로서 유 양의 목표는 무엇일까. 유 양은 “제 기록을 갱신하고 싶다”라며 “이번 유니버시아드에서 은메달을 딴지만 사실 결승전 기록보다 스윔-오프 때 기록이 더 좋았어요. 하지만 스윔-오프는 비공식 기록이기 때문에 이것을 공식 기록을 만들고 싶은 것이 제 목표예요”라고 말했다. ‘스윔-오프’를 넘어 유 양 스스로도 만족할 만한 기록이 나오길 기대해 본다.

‘메르스’ 강동 경희대병원 13일 재개원

경영관리실, “간접손실 포함하면 피해액은 300억 원 이상 예상”

강동경희대병원 재개원

이시은 기자 dtldms77@khu.ac.kr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Coronavirus, MERS-CoV)의 76번째 환자 발생으로 지난달 19일 문을 닫았던 강동경희대병원이 지난 13일 재개원됐다. 특성설 격리대상자 97명에 대한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자, 보건당국이 11일 집중관리병원 지정을 해제한 데 이은 조치다. 전면폐쇄 후 25일만이다.

강동경희대병원은 지난달 6일 76번 메르스 확진자가 발생한 뒤 다음날 응급실을 긴급 폐쇄했다. 이후

병원 내에서 혈액 투석을 받던 메르스 의심환자가 165번째 양성 판정을 받자 지난달 19일 혈액 투석실을 제외한 전 병원을 폐쇄했다. 가장 고위험군으로 분류됐던 혈액 투석실 환자 90명과 의사 2명, 간호사 5명은 코호트격리(특정 질병 발병 환자와 의료진 모두를 ‘동일 집단’으로 묶어 통제로 격리하는 조치) 됐다.

의료진 7명은 격리된 후에도 외부 의료진과 함께 쉬지 않고 투석 치료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격리대상자였던 323명의 교직원들이 지난 11일 전원 복귀를 마치면서 원내업무 또한 정상화 됐다.

그간 병원은 ‘메르스 여파’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 환자 발생 시점부터 매주 1회 인공신장실을 포함한 병원 건물 전체에 소독 작업을 시행했으며, 재개원을 앞두고 있던 지난 9일에는 전체 환경청소를 실시했다. 또한 메르스 환자가 발생했던 응급실과 투석실의 경우 ‘공기멸균 공조시스템’을 도입, 유해한 공기와 각종 병균의 유입을 차단하는 시스템을 마련했다.

하지만 폐쇄에 따른 피해규모는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병원 경영관리실 신재구 팀장은 “6월 및 7월의 직접적인 손실 뿐 아니라 이후 진료실적 회복까지 약 300억 원

이상의 피해액이 발생할 예정”이라며 “타 병원보다 매우 큰 규모”라고 말했다. 병원 측은 현재 정부에 추경예산 긴급지원을 요청하고 원내 예산통제 및 외래진료시간 확대 등 각종 대책을 통해 손실을 조기 회복하겠다는 입장이다.

회복조짐 또한 좋다. 병원 측은 “재개원 2주차 기준 메르스 전 대비 외래환자는 50%, 입원환자는 병동 순차적 오픈으로 35% 정도 회복됐다”며 “2주차에 들어 회복 추세가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예상보다 큰 진료 수의 공백으로 인해 완전한 회복 까지는 당분간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시인들의 시인, 《김수영 전집》

후마니타스칼리지 - 대학주보 공동기획, 고전의 사계 ⑯

이영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한국이라는 나라는, 다른 건 몰라도, 시를 쓰고 읽는 일에 있어서는 세계 어느 나라도 범접하지 못할 대단한 기록을 가진 시의 공화국이다. 매년 몇 백여 권의 시집이 출판되고 20세기를 통하여 백만 권 넘게 판매된 시집이 여러 권에 달했던 나라는 지구상에 한국 말고는 없다. 현재의 지구 문명을 지배하다 시피 하고 있는 영어권에서도, 같은

문명권인 중국이나 일본에서도, 시집이 이렇게 활발하게 출판되고 읽히는 일은 없었다.

한국에서 시인은 존경받는 예술

가이자 정신적 스승이다.

이 특별한 시의 공화국에서, 시인들이 좋아하는 시인, 특히 시의 길에 갓 들어선 젊은 시인들이 좋아하는 시인이 있다. 김수영이 바로 그다.

시인이 작고한 이후 거의 50년이 지난 지금까지 김수영 시인의 영향력은 조금도 줄어들지 않았고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젊은 시인들이 절대적인 지지를 받는 이유는 무엇일까? 김수영의 시에 어떤 매력이 있어 젊은이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것일까?

김수영은 존경받는 시인을 넘어

한국 지성의 표상이다. 김수영은 예술가와 지식인이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하나의 모범을 보여준다. 김수영이 생각하는 예술가란 인간이 가진 꿈과 감정을 그려내어 현재의 삶을 넘어서 새로운 삶이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사람이다. 보다 나은 내

일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지식인도 마찬가지다. 인간이 추구하는 자유에 대해 김수영만큼 선명한 원칙을 제시한 한국의 지식인은 없었다.

▶7면으로 이어짐

알림

대학주보 SNS로 더 다양한 대학주보를 만나보세요!

f 페이스북 페이지 <https://www.facebook.com/khunews>

g+ 인스타그램 <https://instagram.com/khunews/>

p 페터스트트 <https://www.pinterest.com/daehakjubo/>

u 유튜브 ‘대학주보’

https://www.youtube.com/channel/UC8t9_LCfmJ7dxw4THjUR0YQ

g 구글플러스 ‘경희대 대학주보’

<https://plus.google.com/u/0/108802383036836051070/posts>

특별기고

젊은 세대들이 왜 ‘복고 문화’에 끌리는가?

서상훈 (문화평론가) ▶7면



시선

사설

‘포스트 메르스’

경희가 함께 헤쳐가자

메르스 공포 속에 문을 닫았던 강동경희대학교병원이 지난 13일 재개원했다. 최초 확진자 발생 36일 만에 병원 전면 폐쇄조치 이후 25일 만의 재개원이다. 당초 강동경희대병원은 6월 6일에 76번 확진자가 발생한 후 하루 뒤인 7일에 응급실을 긴급 폐쇄조치한 데 이어, 6월 18일 165번 확진자가 인공신장실에서 메르스 양성판정을 받게 되자 내부 논의를 거쳐 하루 뒤인 19일에 전격적인 병원 전면 폐쇄조치에 돌입한 바 있다. 이 같은 강동경희대병원의 조치는 의료계 안팎으로부터 신속하고 적극적인 조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 강동경희대병원은 전면 폐쇄 이후에도 부단한 노력을 통해 추가 확진자 발생 없이 사태를 마무리시키며 호평을 받았다. 매주 건물 전체 소독을 실시하는 것은 물론, 확진자가 발생했던 응급실과 인공신장실에는 3중 필터가 장착된 공기질환 공조시스템을 설치해 실내공기 정화에 나서기도 했다. 특히 감염에 취약한 혈액투석환자 집단을 메르스로부터 효과적으로 보호한 것은 의료계 일각에서 ‘기적과도 같은 일’로 평가될 만큼 커다란 성과였다.

강동경희대병원의 이번 메르스 대응 조치는 커다란 재정적 부담을 감수하고 이뤄진 것이라는 점에서 더욱 큰 의미를 지닌다. 이번 메르스 사태로 병원 측이 입은 직, 간접적인 손실액 규모는 300억 원 가량에 이른다는 후문이다. 때문에 ‘이윤창출’이라는 기업논리를 넘어 환자와 지역사회를 최우선 가치로 두었던 강동경희대병원의 이번 메르스 대응 과정은, 작게는 교육, 연구, 사회기여라는 대학의 3대 기능을 공유하는 대학병원으로서 ‘사회기여’를 몸소 실천했다는 의의를 지니고 있으며, 크게는 우리 사회에서 ‘의료’란 과연 어떤 의미이며 무엇을 지향해야 하는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었다는 의의를 지닌다고 하겠다.

주지하듯, 의료는 돈벌이의 수단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투자이며, 의료대상을 향한 공공적 성격의 서비스다. 그리고 이러한 의료의 가치가 우리 사회와 의료계 전반에 내재화되어 있을수록, 이번 메르스 사태와 같은 전국적 비상상황에서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방역체계를 구축하고 사태를 진정시킬 수 있다. 이러한 가치 속에 강동경희대병원은 그 최前线에서 소임을 다한 셈이다.

이제 전국을 강타했던 메르스의 기세는 한 풀 잣아드는 모양새다. 메르스 여파로 큰 상흔을 입은 우리 사회는, 아마도 메르스 종식 이후엔 이번 사태를 서둘러 잊어버리려 할지도 모르겠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경희대학교 구성원들은 강동경희대병원이 처한 현재의 상황에 더욱 주목해야 한다. 경희구성원의 일원으로서 메르스 사태 해결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한 강동경희대병원이 맞닥뜨리게 된 불가피했던 ‘손실’을 온전히 병원 측의 짐으로만 방치하는 것은 온당한 공동체적 태도라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강동경희대병원의 의료진 및 직원사회가 끊임없이 노력해온 이후를 헤쳐 나가야 한다. 격려나 응원의 목소리는 물론이거니와, 현실적인 재정 손실분에 대한 대학 차원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책 마련도 시급한 시점이다. 경희대학교는 강동경희대병원의 ‘지역공동체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공유하고 있는 한 가족이기 때문이다.

신규우편번호,

서울캠 ‘02447’ 국제캠 ‘17104’

미디어 여론동향 2015. 7. 13 ~ 7. 26

여론동향팀 khunews@khu.ac.kr

경희대병원이 내원객들의 진료 편의를 위해 오전 진료를 30분 앞당기는 조기 진료에 들어갔다.(“30분 일찍 진료받으세요” 경희대병원 조기 진료 실시/메디컬타임즈, 2015.7.17) 전 진료과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조기 진료로 경희대병원은 9시부터 시작했던 외래 진료를 8시 30분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김건식 병원장은 “동대문구 유일의 상급종합병원으로 모든 교직원이 합심해 메르스를 막은 국민 안심병원으로의 자부심이 대단하다”며 “비록 육체적으로 힘들지만 지역주민의 격려와 응원은 안전한 의료환경을 제공하는 병원에 큰 힘이 된다”고 밝혔다. 한편, 경희대병원은 토요일 오전 외래



이주의 주제 - SPACE21 사업 ‘특별기구’ 설치

건물과 함께 ‘신뢰’ 구축하는 계기 되길

이민교 기자
mingyo@khu.ac.kr

하루가 다르게 서울캠퍼스(서울캠) 대운동장 주변의 풍경이 달라지고 있다. 교육에 최대한 지장이 없도록 방학부터 시작된 SPACE21 사업 공사가 한창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기자가 입학하기 오래 전부터 ‘야기’와 ‘그림’으로 논의됐던 이 사업이 실제 모습이 되자, 느끼는 감정은 다양하다. 낯설기도 하고, 기대되기도 하고 그런 복잡한 마음이다. 무엇보다도 공사가 시작됐다는 점에서 ‘다행스런’ 마음이 크다.

그동안 SPACE21 사업을 두고 여러 이야기가 오고갔다. 안전문제와 방음·방진 문제는 대규모 공사에 따른 당연한 이야기였다. 특히 최근에는 ‘공사비용 확보’를 두고 구성원의 우려가 커지기도 했다. 서울캠 SPACE21 공사비용으로 책정된 약 800억 원 중 기체 500억 원 상한계획과 재정사업을 통한 자금 충당계획을 두고 종학생회(총학)는 대학본부 측이 이에 대한 면밀한 계획을 세우지 못한 점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이 문제에는 SPACE21 공사비용 마련 계획을 바라보는 총학과 대학본부의 견해차도 분명 있었지만, 갈등을 더욱 부채질한 것은 결국 신뢰를 쌓아가는 과정이 부족했던 것이 보다 근본적인 이유였을 것이다. 신뢰라는 것은 단순히 긴 시간동안 이 야기했다고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지난 22일 총학이 제시한 ‘SPACE21 논의를 위한 8가지 제안’에 대해 대학본부와 합의가 됐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이 ‘제안’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바로 소통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특별기구’다. 양 측은 대학본부와 학생 측 인사가 참여한 특별기구를 설치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SPACE21과 관련된 문제를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이 자리를 통해 기체 상한계획을 비롯한, 안전 문제, 대운동장 사용문제, 강의수와 교육여건 문제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한다.

결국 ‘누구로 구성된 특별기구’ 보다 ‘무엇을 하는 특별기구’가 더 중요하다

지금이라도 대학본부와 총학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소통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우리학교가 수많은 회의체를 갖고도 소통이나 신뢰의 문제가 매번 불거지는 것처럼, 결국 ‘누구로 구성된 특별기구’보다 ‘무엇을 하는 특별기구’가 더 중요하다. 따라서 회의체의 형태를 정한 이번 합의를 넘어 구성원의 편의와 권리를 위한 회의 내용에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

SPACE21 사업은 우리학교의 숙원사업이다. 이제 SPACE21 사업은 ‘첫 삽’을 끝을 뿐이다. 앞으로 갈 길이 멀다. 앞으로 공사가 안전하게 진행되도록 특별기구의 활발한 활동을 기대한다. 그래서 이 사업이 단순히 건물을 짓는 것을 넘어, 구성원 간 신뢰를 건설하는 주춧돌이 되길 바란다.

진료를 평일 수준으로 확대하는 등 내원객들의 진료 편의를 위한 방안들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서울캠 제28대 총여학생회(총여) 허:들 이바름(한약학 2013) 부회장이 지난 14일 사퇴했다. 총여학생회 이바름 부회장 사퇴/대학주보 온라인, 2015.7.17) 이 부회장은 대자보를 통해 “1학기동안 가정사정과 개인적인 문제들로 인해 제대로 활동하지 못했다”며 “앞으로 이 자리를 지키지 못할 상황에서, 여러분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 채 가만히 있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해 사퇴를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경희 학우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며 응원해주시고 격려해주셨던 많은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총여 측은 부회장직을 공식으로 둘 예정이다. 총여 금혜영(아동가족학 2012) 회장은 “회칙상 보궐선거가 의무조건은 아니기 때문에 부회장을 다시 선출할 계획은 아직 없다”고 밝혔다.

페이스북 경희대학교 대나무숲 페이지에는 ‘떠난 동생’(#경희숲_9829, 2015.7.16)에 관한 많은 이의 눈시울을 붉혔다. 이 글에는 311개의 ‘좋아요’와 6개의 댓글이 달렸다. 글쓴이는 “동생. 네가 떠나고 (태양 주위를) 지구가 3바퀴나 돌았다”며 “오늘은 네 생일인데 좋

아하는 케이이 무엇인지 모르는 나를 용서해줘”라고 밝혔다. 이어서 “친구들한테 네 자랑 많이 했는데, 너한테 직접 이야기 한 적 없어 너무너무 서럽다. 다 들리게 이야기할 걸…”이라며 “나는 네 언니여서 행복해. 그리고 사랑해 우리 또 만나자. 생일 축하해”라고 전했다. 이에 ‘동생도 글쓴이의 동생이어서 행복했을 것이다’, ‘동생분 생일 축하한다’ 등 응원의 댓글이 달렸다.

서울캠퍼스의 우편번호는 현행 ‘130-701’에서 ‘02447’로, 국제캠퍼스의 우편번호는 현행 ‘446-701’에서 ‘17104’로, 광릉캠퍼스 평화복지대학원도 현행 ‘472-864’에서 ‘12001’로 바뀐다.(서울캠 우편번호 ‘02447’, 국제캠 우편번호 ‘17104’/대학주보 온라인, 2015.7.20) 우정사업본부가 현행 6자리 우편번호를 오는 8월 1일부터 5자리 새 우편번호로 변경함에 따른 것이다. 기존의 6자리 우편번호는 1년 동안 통상 우편물의 규격으로 인정돼, 내년 7월 31일까지 새로운 5자리 우편번호와 병행해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내년 8월 1일부터 기존의 6자리 우편번호를 기재한 우편물은 ‘규격 외 요금’이 적용돼, 추가요금이 적용되는 만큼 신규 우편번호를 활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대학 기숙사비 카드 납부 추진, 그렇다면 등록금은?

세시봉

백승철 (편집장)



교육부가 지난 20일 대학 기숙사비를 현금 분할납부나 카드납부가 가능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사학진흥재단에서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기숙사에 거주하는 대학생의 수는 370,568명이다. 이렇게나 많은 기숙사 거주 학생들이 카드납부를 통해 결제를 편리하게 할 수 있게 된다니 이는 좋은 일이다.

하지만 기숙사비 뿐만 아니라 카드납부 방식이 절실히 필요한 곳이 또 있다. 지난해 전국 407개 대학 중 148개 학교만이 신용카드로 등록금을 납부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한다. 이는 전국에 있는 대학 중 절반에도 못 미치는 37%에 불과하다. 등록금 카드납부는 기숙사에 거주하는 대학생뿐만 아니라, 모든 대학생들에게 해당되는 일이다. 더욱 중요하고 본질적인 문제라는 뜻이다.

대학은 카드로 등록금을 납부하게 되면 카드 가맹점 수수료만큼 손해가 발생하고, 결국 그 액수만큼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며 카드납부를 꺼리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회는 등록금 납부 시 카드결제가 가능하도록 하고 가맹점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하지만 지난해 3월 발의돼 아직도 계류 중인 ‘대학구조개혁법안’처럼 언제 통과가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교육부가 이번 ‘대학생 기숙사비 납부방식 개선안’을 추진한 이유를 살펴보자. 교육부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인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조치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정부에서 학생들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여러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환영할 일이다. 하지만 학생들에게 기숙사비 보다 더욱 본질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는 등록금 문제에 대해서 못 본 채 한다면 이는 ‘꼼수’에 지나지 않는다.

올해 기준 전국 4년제 대학의 학생 1인당 연 평균 등록금은 667만 원이다. 지난해 사립대학 기준 한 학기당 기숙사비 1인 평균 납부액은 약 116만 원이다. 연 평균 232만 원으로 등록금에 3분의 1 수준이다. 신용회복위 자료를 살펴보면,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신용회복위에서 채무 조정에 들어간 20대가 약 4만 2300명이었고 대부분이 대학생이었다. 채 사회에 나가기도 전에 ‘빚쟁이’로 몰리는 풍경은, 가장 절박한 사안이 정부의 등록금 관련 정책이라는 아주 많은 지표 중 하나일 뿐이다.

‘대학생 기숙사비 납부방식 개선안’이 생색내기가 아닌 정말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인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조치의 일환이라면 기숙사비 뿐만 아니라 등록금 납부에도 카드 납부를 추진하는 것이 옳다. 기숙사비는 카드납부로 결제가 가능하도록 추진하면서 등록금 카드납부 문제에 대해서 못 본 채 한다면, 학생들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인 교육비 부담 경감에 대해 진정성을 의심할 수 밖에 없다. 물론 이 역시 보완책 수준이다. 학생들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가장 현실적인 조치는 정부의 지원을 통한 등록금 인하일테니까.

알림

대학주보에

당신의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대학주보는 늘 열려있습니다. 여러분이 겪은 모든 일을 이야기해주세요. 무엇이 라도 좋습니다. 사소한 추억부터 어려운 상황까지 함께 나눠주세요. 늘 당신의 옆에 있겠습니다.

http://www.mediakhu.ac.kr/khunews/inform_us_list.asp

교훈 학원의 민주화 | 사상의 민주화 | 생활의 민주화 경희대학교

대학주보 1955년 5월 12일 창간(주간)

발행·편집인 조인원 | 주간 김민진 | 편집장 백승철 | 제작/인쇄 중앙일보미디어(주) 구독료 1년 1만원 | 구독 02-961-0093-4 | 주소 경기 02-441-7317(인터넷기획)

인터넷 대학주보 <http://mediakhu.ac.kr> | 이메일 khunews@khu.ac.kr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6(회기동) | Tel 02-961-0093-5

국제캠퍼스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디렉터로 1732(서천동) | Tel 031-201-3230-2, FAX 031-204-8121

보도

경영대학 학점평균 'B0 이하' 맞춰

대학의 '성적평가 협조요청' 공식시행하는 단과대학으로는 '처음'



경영대학 성적부여 논란

김도엽 기자 wogmd567@khu.ac.kr

【서울】 경영대학이 2015학년도 1학기에 개설된 전공강의에 한해 학점평균을 B0 이하로 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논란이 됐던 '성적평가협조요청'을 단과대학 자체적으로 공식 시행한 것은 처음이다.

당시 교무처는 '성적평가협조요청' 공문을 통해 '실험·실습 과목과 실기과정을 제외한 모든 강좌별 평균학점을 B0(평점 3.0) 또는 그 이하가 되도록 평가하라'는 내용을 각 단과대학에 통보했다. 이를 두고 총학생회(총학)가 크게 반발해 결국 철회한 바 있다.(대학주보 1582호(2014.12.08.))

경영대학 이호창 학장은 "평균학점을 B0 이하로 맞추는 안은 지난해부터 단과대학 내 교수들과 논의를 거친 끝에 대부분 동의한 바 있다"며 "이를 학생회와 학생들에게 충분히 이야기한 뒤 시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학장은 "학점이 교수와 학생간의 논의 대상이 되는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학점문제를 가지고 교수가 학생들과 협상을 하는 것이 교육자로서 옳은 일인가?"라고 반문하며 "진정한 교육의 질이 무엇인지 학생들이 스스로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학장은 이어 현재 경영대학은 강의의

〈경영대학 성적부여 현황〉

구분	2014-1학기	2014-2학기	2015-1학기
영어강의 평균	3.18	3.22	3.04
부분 영어강의 평균	3.35	3.24	2.95
제2외국어 강의 평균	-	2.69	2.56
일반 강의 평균	3.09	3.09	2.95
총 강의 평균	3.18	3.15	2.97

출처: 경영대학 제공

각 학점별로 비율을 정해 통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학점별 비율을 정하고 여기에 추가해 학점평균을 3.0 이하로 맞추는 것이다"라며 "실제로 지난해 경영대학 학점 평균은 3.0에 거의 근접한 수준이고 이번에 학점평균을 3.0 이하로 맞춘다고 해서 학생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오히려 '학점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손해 보는 학생들에게 더 열심히 공부할 수 있게 동기부여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경영대학은 앞으로도 단과대학 자체로 학점평균 3.0 이하로 맞추는 안을 계속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영대학이 채택한 이번 학점평균 제도에 대해 학생들의 의견은 갈렸다. 경영대학 A 학생은 "실제로 우리학교가 외부에 학점인플레가 심한 학교로 알려져 있는데, 이번

기회에 평균을 B0로 맞춰서 줄일 필요가 있다"며 "학점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자신의 노력이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B학생은 "왜 학교 전체가 아닌 경영대학만 시행해야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오히려 학점평균을 맞추기 위해 A-정도를 받을 수 있는 학생이 B+를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생겨 학점에서 손해 보는 경우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학생들은 이번 성적 평가가 사전공지가 없었다는 점을 불만으로 표현했다. 이와 관련해 우리신문 페이스북 페이지에는 '이 핍의사항이 수강신청 이전에 공지됐다면 영어수업을 피해서 수강했을 것이다' '수강신청 기간 이전에 어떠한 이메일이나 문자메세지도 받지 못했다' '기말고사 직전에 소문으로만 들었다' 등의 의견이 게재됐다.

대학본부 "가이드라인 필요" 총학 "투명한 성적평가 기준 공개"

'성적평가제도 개선 협의체' 5차 회의

박기윤 기자 kyoony7230@khu.ac.kr

'성적평가제도 개선 협의체'(협의체) 제5차 회의가 지난 17일 진행됐다. 하지만 서울캠퍼스(서울캠) 총학생회(총학)와 대학본부 간의 이견은 좁혀지지 않았다.

이날 회의에서도 대학본부는 지난 회의와 동일하게 학점평균을 B0(3.0) 이하로 부여하는 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서울캠 후마니타스칼리지 대학생위원회 황선경(정치외교학 2011) 위원장은 "성적을 수치화된 가이드라인에 가두는 것은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며

"투명한 성적평가 기준 공개를 통해 학생들이 자신의 성적에 납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대학본부 측은 "성적 투명화 제도에 대한 의견은 좋지만 투명한 성적을 위해서는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며

"이 안은 가이드라인이기 때문에 강제성이 있는 것은 아니다. 확실한 강의 철학이 있는 교수들은 본인의 기준대로 성적을 부여하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은 최소한의 안전장치일 뿐이다"라고 설명했다.

서울캠과 국제캠퍼스(국제캠) 총학의 입장에도 온도차가 있었다. 국제캠 총학 이서영(식품생명공학 2012) 부회장은 "국

제캠의 경우 평균학점을 B0(3.0)으로 고정한다면 오히려 성적이 오르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며 "가이드라인이 무조건 부정적인 영향만 주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한 "지난 학기 서울캠 총학이 실시한 설문조사는 서울캠에서만 실시한 반쪽짜리 설문조사라 공신력이 떨어진다"며 "다음 학기에 양 캠퍼스 학생 모두가 참여하는 설문조사를 해 전체 학생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영대학이 단독으로 2015학년도 1학기에 개설된 전공강의에 한해 학점평균을 B0 이하로 부여한 것에 대해서도 문제제기가 있었다. 서울캠 총학 강필준(자율전공학 2012) 부회장은 "지난 학기 평점을 B0(3.0)으로 고정한 경영대학의 경우, 회의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음에도 독단적으로 한 것은 문제다"며 "성적평가 방식은 바뀌었으나 장학금 제도는 기존 그대로여서 피해를 보는 학생들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학본부는 "성적제도를 바꾸는 것은 단과대학의 자율이라 대학본부에서 간섭하기 어렵다"며 "다만 장학금 문제는 학교 차원에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제 6차 회의 일정은 아직 미정인 상황에서 결국 중재안이 도출되지 않는 한 같은 내용의 회의가 반복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giveNgive 기쁜기부 캠페인



경희 기부천사파트너즈

경희라이언 일만인클럽

경희 라이언 서포터즈클럽

매그놀리아 스토리

후원의 집

The World is
a Global Village and
the Peoples of the World
are One Human Family.
May We Strive for
Peace and Humanity
with the Spirit of
Global Cooperation
Society.

give@khu.ac.kr

givekhu

givekhu

givekhu

02-961-0932 031-201-3190



give.khu.ac.kr

산협단, “기술이전 수입 30억 원 이상 목표”

대학알리미 6월 공시 분석 ①

류제원 기자 jennyoo95@knu.ac.kr

2014학년도 우리학교 기술이전 계약건수가 총 42건, 수입료가 약 20억 9,0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3학년도에 비해 계약 건수가 14건 증가하고, 수입료도 약 7억 원 늘어났다. 대학정보공시사이트 ‘대학알리미(www.academyinfo.go.kr)’에 지난달 30일 공개된 내용이다.

대학의 기술이전 계약은 ‘연구, 개발(R&D)’을 통해 취득한 특허, 디자인 등의 지적재산권을 기업에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기업은 기술이전을 통해 얻은 수익을 창출하고, 대학 역시 새로운 연구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산학협력 중 대표적인 활동이다.

기술이전이 증가한 것에 대해 산학협력단 측은 “연구를 담당하는 교수와 산학협력단의 협업이 잘돼 거둔 성과”라며 “다른 대학에 비해 후발 주자인 만큼 더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우리학교 기술이전의 대표적인 성과로는 ‘HEVC/H.265’가 있다. 이 기술은 전자정보대학의 박광훈 교수 연구팀이 개발한 것으로, 대용량 동영상 데이터를 압축



하는 코딩기술이다. 이 기술을 사

용하면 인터넷과 모바일에서 보다 빠른 속도로 고화질의 동영상을 매끄럽게 볼 수 있어, 스트리밍 서비스 사용자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이용가치가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현재 이 기술은 국제 표준 특허로 등록돼 있고, 전 세계 모든 IT 관련 정보 기전에 필수로 탑재될 예정이다. 이 기술이전을 통해 이미 약 10억 원의 수익을 창출했고, 향후 20년간 기술사용료를 계

속 받게 될 예정이다.

한편 2014학년도의 기술이전 수입료는 2013학년도보다는 증가했지만, 최고치를 기록했던 2012학년도의 30억 6,400만원보다는 저조했다. 산학협력단은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적극적인 기술 마케팅이 부족했던 결과”라고 설명하며 “올해는 적극적인 기술 마케팅을 통해 30억원을 수주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특히 우리학교는 ‘대학 창의적 자

산 실용화 지원 사업’에 선정돼 교육부에서 올해부터 3년간 지원금을 지원받는다. 올해는 5억 원, 내년에는 10억 원 지원을 예상하고 있다. 산학협력단은 이런 지원금을 토대로 변리사 등 실용화 전담인력을 갖추고, 시제품 등을 제작할 계획이다. 산학협력단 측은 “향후 연구 진흥을 위한 재투자를 활발히 해 교수와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사 강의료 평균 4만 9,950원, 사립대학 평균보다 낮아

대학알리미 6월 공시 분석 ②

백승철 기자 scho1357@knu.ac.kr

2015학년도 우리학교 ‘시간당 강사 강의료 평균’이 4만 9,95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5만 693원과 비교할 때 약 700원 줄었다. 4년째 일반대학 176개교 평균 5만 5,100원 보다도 5,150원 낮았고, 사립대학 평균 5만 600원 보다도 적었다. 대학정보공시사이트 ‘대학알리미(www.academyinfo.go.kr)’에 지난달 30일 공시된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기존에 우리학교의 시간당 강사 강의료의 지급기준 단가는 최저 4만 1,000원에서 최고 5만 1,000원으로 총 2가지로 구분됐다. 하지만 올해부터 최저 2만 550원에서부터 최고 7만 6500원까지 총 6가지로 세분화됐다.

이중 5만 1,000원을 강의료로 받는 시간강사가 90.1%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가장 많았지만, 지난해 같은 금액을 강의료로 받은 시간강사가 총 94.8%였던 것과 비교할 때 4.7%p 감소했다. 또한 지난해 강의료로 4만 1,000원을 받은 시간강사가 5.2%, 올해도 5.2%인 반면, 2만

〈우리학교 시간당 강의료 지급단기 구분 및 비율〉

기준	비율	2015학년도 신규	비율
4만 1,000원	5.2%	2만 5,500원	4%
		4만 1,000원	5.2%
		5만원	0.1%
4만 1,000원	94.8%	5만 1,000원	90.1%
		5만 1,500원	0.1%
		7만 6,500원	0.4%

550원을 받는 시간강사가 4.0%로 새롭게 늘었다. 이런 강의료 세분화의 결과 평균 강의료 역시 줄어든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한편, 시간강사 강의당당비율은 3년 동안 하락세다.

“많은 수의 특허 출원보다
널리 활용되는 것 더 기대”

인터뷰 - 박광훈 교수

방누리 기자 superior423@knu.ac.kr

전 세계적으로 벌어진 애플과 삼성전자의 소송전에서 보듯 특허의 중요성은 점점 커지고 있다. 우리학교 연구진의 특허출원 현황은 어떠할까. 국제캠퍼스 연구 산학협력처에 의하면 2014년 기준 교내 특허출원 건수에서 박광훈(컴퓨터공학) 교수가 국내외 64

건으로 가장 많았다. ‘2014년 세계 표준의 날’ 균정포장을 수상

하기도 한 박 교수는 국제표준화의 선도자 역할에 힘쓰고 있다.

박광훈 교수의 주 연구 분야는 멀티미디어, 그 중에서도 동영상을 압축하는 기술인 ‘코덱’

이다. 그는 MPEG-2, MPEG-4, AVC/H.264를 시작으로, UHD

방송에 사용되는 영상압축표준인

HEVC/H.265에 이르기까지 동영

상 코딩관련 국제표준을 제정하

고 관련 핵심기술을 채택시켰다.

그리고 이 기술은 현재 스마트폰

이나 TV, 디지털 카메라 등에 탑

재돼 수많은 사람들의 생활 속에

들어와 있다.

박 교수는 최다 특허출원 보유자란 말에 “개인적으로는 기분이 좋다”면서도 “하지만 특허 등록과 출원 건수가 많다는 이 얘기보다는 내가 만든 기술이 전 세계에서 퀄리 애플리케이션(Killer Application)으로 널리 활용된다”는 말을 더 듣고 싶다”고 말했다.

그가 지금까지 팔복 할만한 성과를 낼 수 있었던 동력은 무엇일까. 박 교수

는 그 첫 번째 비결을 ‘재미’로 꼽았다. 연구를 하다보면 대인관계 등에서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많지만 재미있으면 고단함도 잊은 채 몰입하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박 교수는 대학원생을 뽑을 때 ‘게임하느라 밤새 적 있는가’를 묻곤하는데, “며칠 밤을 새가며 게임을 하는 사람은 재미를 붙이면 끝까지 가는 사람”이라며 “연구자에게는 이런 ‘근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또한 박 교수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떠올리는 특별한 방법으로는 “문제가 되는 현상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현상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다면 머릿속에 뜯구름만 잡게 될 것”이라는 게 그의 지론이다.

특허출원을 위한 연구가 쉬운 길은 아니었다. 하지만 박 교수는 “하고 싶은 것, 흥미 있는 일을 하고 산 덕분에 결과도 좋은 것 같다”고 회상했다. 앞으로의 연구계획도 복잡하지 않다. 그저 “재미있으면 계속 하겠다”고 한다. 인정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좋아하는 일에 몰두해온 그의 20년 세월이 느껴졌다. 롤프 메르클레의 ‘천재는 노력하는 사람을 이길 수 없고 노력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을 이길 수 없다’는 말이 떠오르게 하는 박광훈 교수의 앞으로의 행보가 기대된다.



경희대학교 대학의 소리 방송국

미디어센터 | VOU | 대학주보 | 영어신문 | 대학원보 | 동문회보 | 의료원보 | 고찰 | Admin

VOU소개 | VOU뉴스 | 오디오방송 | 영상방송 | 특별방송 | VOU커뮤니티

(AD시사) 당신의 마...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도시경기제에 대해 알아보았다.

Voice Of University Voice Of University

VOU방송국 방송국소개

VOU방송국 부서소개

VOU방송국

경희교육포럼 개최 지난 26일 우리학교 교육의 성과와 나아갈 방향 등에 대해 이야기하는 경희교육포럼 개최됐습니다.

서울캠퍸스
01 VOU뉴스
02 오디오방송
03 영상방송
04 특별방송

AM : 08:20 ~ 08:55
PM : 12:10 ~ 01:00
PM : 05:35 ~ 06:10

Voice Of University, 대학의 소리 방송국이라는 이름의 V.O.U는 학원의 민주화, 사상의 민주화, 생활의 민주화를 바탕으로 건전한 학풍조성에 앞장서 왔습니다. 뉴스 보도를 통해 학내 정보를 전달하고, 교양과 오락 프로그램을 방송하며 정서함양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V.O.U는 항상 경희 구성원과 대학의 지성을 위해 목소리를 높이겠습니다.

V.O.U 여기는 정성을 다하는 여러분의 대학소리 방송입니다.

보도

2014학년도 결산공고, 134억 원 ‘흑자’ 운영비, 연구비 삭감 등은 고민거리



2014학년도 결산공고 분석

최승욱 기자 dotori14@khu.ac.kr

2014학년도 자금계산서에 따르면 우리 학교의 수익구조가 외견상으로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 현금 유출입을 토대로 재정 상황을 바라본 ‘자금계산서’에 따르면 ‘순수 수입액’이 4,551억 원, ‘순수 지출액’이 4,417억 원을 기록해 134억 원 흑자를 기록했다. 이는 2013학년도 ‘순수 수입액’ 4,280억 원에 ‘순수 지출액’ 4,461억 원을 기록해 181억 원 적자가 났던 상황이 개선된 셈이다. 순수 수입액은 총 수입액에서 기금인출수입, 차입금 등을 제외하고, 순수 지출액은 총 지출 중 기금적립금을 제외한 것이다.

또한 결산공고를 살펴보면 우리학교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은 2013학년도 6,338억 원에서 2014학년도 6,587억 원으로 늘었고, 같은 기간 부채 역시 1,611억 원에서 1,706억 원으로 증가했다.

자산의 세부내역 중 고정자산은 3,791억 원으로 전년대비 52억 원이 줄었고, 반대로 1년 이내에 환급할 수 있는 자산인 유동 자산이 1,531억 원으로 93억 원 증가했다. 특히 투자자산의 경우 2013년 7억 원에 불과했던 것이, 2014학년도 30억 원으로 늘었

다. 적립금의 경우도 같은 기간 948억 원에서 1,146억 원으로 약 20% 증가했다.

특히 눈에 띄는 점은 고정자산매각수입이 증가세인 점이다. 2013학년도 31억 원에 불과했던 이 항목은 2014학년도 120억 원으로 급증했다. 재무처 재무회계팀 김유경 계장은 “국제캠퍼스 내 4개 필지의 토지매각에 따른 자산매각의 따른 결과”라고 설명했다.

전체 수입액의 경우 4,552억 원으로 전년대비 240억 원(5.5%) 증가했다. 2013학년도 2,886억 원이었던 ‘등록금 및 수강료 수입’이 2014학년도 2,929억 원으로 증가했으며, 기부금 수입 역시 100억 원에서 167억 원으로 증가했다. 전입금 수입의 경우 638억 원으로 작년 637억 원과 큰 차이가 없었다.

지출의 경우 교직원 보수액과 학생경비가 각각 작년대비 25억 원, 학생경비 92억 원이 증가했으나 관리운영비 67억 원, 연구비 122억 원이 감소해 총 운영비용합계는 4,455억 원으로 2013년 4518억 원 대비 소폭(1.4%) 운용비용을 줄였다. 하지만 적립금 인출·적립 등을 감안한 총 비용합계는 4,652억 원으로 이를 반영한 운영계산서 상의 2014학년도 당기운영차액은 100억 원 적자로 전 학년도 150억 원에서 개선됐다.

이에 대해 서울캠퍼스 재무처 재무회계팀 박성구 직원은 “감가상각비가 비용으로 잡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지난 2009년 12월 29일에 개정된 ‘사학기관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에 따라 학교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매 회계연도마다 비용처리 해야 하기 때문이다. 박 직원은 감가상각비에 대해 “이 비용은 직접적인 현금지출이 발생하는 비용이 아니다”고 밝혔다. 실제로 우리학교 건물과 구축물의 감가상각비용으로 잡히는 비용 109억 원은 운영차액손실액인 100억 원과 비슷한 액수다.

이처럼 결산안 지표상 재정상황은 양호해졌지만, 결국 재정수입구조가 달라지지 않고 있고 연구비 등이 대폭 삭감된 만큼 추가적인 재정정책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자금계산서와 운영계산서 두 계산서 모두 회계연도 기간 내의 ‘수입’과 ‘지출’을 나타내는 자료다. 다만 ‘자금계산서’의 경우 ‘현금의 유출입’만을 기준으로 나타내 보여준다. 예컨대 ‘운영계산서’의 경우에는 건물이 노후화 되는 비용을 ‘감가상각비’ 형태로 매년 계산을 하지만 ‘자금계산서’의 경우 건물보수비용으로 지출할 때까지 건물노후에 관한 비용은 계산하지 않는다.

문화복지시설 2개 업체 할인 중단 GS리테일, “강제할 수 없다”

할인혜택 중단 논란

박기윤 기자 kyoony7230@khu.ac.kr

‘경희의료원 전면플라자 문화복지시설’(문화복지시설) 입점 업체가 제공해온 ‘할인’ 혜택이 일부 업체에는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를 시행해온 업체 중 일부는 할인 혜택을 이미 철회한 상태다. 할인 혜택은 문화복지시설이 지난 5월 11일 공식 개관될 당시, 학내 구성원을 대상으로 신분증을 제시하면 음식 가격의 5~10%를 할인해주기로 약속한 것을 말한다.

문화복지시설 개관과 함께 할인 혜택을 시행해온 업체는 전체 16개 업체 중 14개(조건부, 일부 상품 포함) 업체였다. 하지만 이들 업체 중 ‘한촌설렁탕’과 ‘비틀주스’는 이벤트 기간이 끝났거나 업체 내부 사정으로 할인 혜택을 중단한 상태다.

이에 대해 GS리테일 양장선 운영팀 직원은 “당초 약속했던 할인 혜택을 지키기 위해 업체를 찾아다니며 구성원 대상 할인을 유지해달라 설득했다”면서도

“GS리테일은 입점 업체에 할인을 강제할 수는 없는 입장”이라고 말해 이같은 혜택이 계속되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했다. 나아가 “예상치 못한 메르스 사태로 업체마다 수입이 급감하고 특히 ‘한촌설렁탕’의 경우 문화복지시설 내 다른 업체 보다 원재료 가격에 더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할인 혜택을 철회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메르스 사태와 방학 시즌이 겹쳐 실질적인 수입이 감소해서 할인을 진행하기 어려운 점도 이해해 줬으면 좋겠디”고 말했다.

이같은 상황이라면 현재 할인 정책을 중단한 2개 업체 외에 다른 업체가 할인 혜택을 철회할 경우, 이에 대한 문제제기도 여의치는 않아 보인다. 이에 대해 양직원은 “방학이 끝나고 메르스 여파가 지나면 업체들이 자발적으로 다시 할인을 진행할 가능성이 높고 GS리테일측에서도 여러 가지 행사를 기획하고 있다”며 “현재 문화복지시설이 과도기를 겪고 있는 만큼 안정이 될 때까지 지켜봐 주면 이용객들이 만족스러워 할 결과를 내놓겠디”고 밝혔다.

〈입점업체 할인혜택 시행현황〉

위치	업체명	당초 할인혜택 시행여부	현재 할인혜택 시행여부
B1	기소야	O	O
	한촌설렁탕	O	7월 6일부터 중단
	본안본		당분간 휴업
	천하제면소	O	O
1F	GS25	X	X
	바비박스		입점 당시 가격 조정
	로봇김밥	O	O
	망고식스	O	O
	공차	X	X
	비틀주스	O	X
	까페카우아이	O	O(일부 상품에 대해서만 가능)
	글라스스토리	O	O(조건부)
2F	스테프핫도그	O	O
	빅스	O	O
	명가교동짬뽕	O	O
3F	라운지디	O	O

The University Life website features a news section with the following headlines:

- Traditional Markets Reviving and Growing**: At 4 a.m., before the sunrise, all the merchants are awake and busy preparing for the start of their business at Noryangjin fisheries ...
- Kyungheean**: How Tough Is Your Military?
- KHU Life**: Housing • No Contents. Place • No Contents.

교내 한국인, 외국인 학생들의 다양한 소식을 세계 곳곳에 전해드립니다. 유학생들의 생활 불편사항을 비롯한 학내 이슈를 발로 뛰며 취재합니다. 또한 교환학생과 해외자매대학의 관련 소식을 전하며 경희대의 국제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매월 발간되는 잡지는 양 캠퍼스에 총 3,000부 배포되며 140여 개의 해외자매대학으로도 발송됩니다. 외국인 유학생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영어신문사로 거듭나겠습니다.

Our mission is “to contribute to the internationalization of Kyung Hee University by providing space in which communication takes place among each other in English.” If you have any comments or suggestion for improving the magazine, please, contact us on unilife@khu.ac.kr

경희대학교 영어신문사 The University Life

젊은 세대들이 왜 ‘복고 문화’에 끌리는가

특별기고 - 복고열풍

서상훈
문화평론가

‘예전이 좋았다’는 말이 있다. 내가 어릴 적, 젊을 적, 잘나갈 적이 좋았었다는 그리움이다. 일반적으로 그 ‘좋았던 시절’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가 맞닥뜨리는 ‘오늘’의 현실은 점점 암흑해진다.

이런 관점에서, 작금의 대중문화가 복고열풍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은 현대 한국 사회의 부조리함에 대한 일종의 반응일 수 있다.

지금 한국사회는 일류대, 돈, 인격 상실, 이런 단어들로 팽배한 암흑한 사회다. 수많은 대학생들은 무사히 졸업을 하기 위해 재학 중 수많은 아르바이트를 해야 한다. 졸업 후에는 마땅한 정규직 일자리가 없어서 취업 전쟁을 치러내야 한다. 가까스로 취직을 하더라도, 집 사기가 별 따기보다 어려운 현실을 마주해야 한다.

한국사회에는 가족이기주의와 배금주의가 자리 잡고 있다

이렇게 고된 현실은 젊은이들에게 좌절감을 안겨준다. ‘예전’에는 이렇지 않았다. 1970년대부터 20여 년간은 사회 순응형 모범생이라면 성공할 수 있는 기대가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희망이라는 비전은 사라지고 삭막해진 정신과 물질만능주의가 남은 시대다. 그래서 오늘날 한국 사회에는 나와 내 가족만 잘되면 된다는식의 가족이기주의와 배금주의가 단단히 자리 잡고 있다. 이렇게 황폐해진 사회에서 한국인에게 정감과 성취감이 남아있던 예전이 ‘좋았던 시절’로 다가오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 것이다.

만일 일반 대중이 현실에서 이를 수 없는 어떤 공통된 욕망을 대중문화가 대리만족시켜줄 수 있다면, 그 아이템은 사회 일반의 반향을 이끌어내어 주류적 열풍을 만들어내게 된다. 그렇다면 ‘복고열풍’이 가리키는 우리의 옛날은 어떠했는가. 정



치적 가치판단을 배제했을 때, 우리의 과거는 성장 일변도의 과거였다. 1970년대 고도성장기 이후로 한국사회는 수많은 성장을 경험했다. 대학생 정도의 학력이면 와달라는 기업이 줄을 서던 시대, (지금에 비해) 약간의 노력으로 내 집 마련에 성공하던 시대, 그리고 그렇게 집의 가치가 매 해가 다르게 껑충껑충 뛰어오르던 시대, 그것이 그 옛날, 우리 사회의 모습이었다.

예술가는 항상 불안한 직업입니다. 예술가가 되었다면, 당신은 뚱(패배자)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예술가에게는 항상 다음(Next)이 있습니다. 패배하면 다시 또 도전하고 다음, 다음을 외치세요.”

‘복고 열풍’을 통해 대중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 수 있다

사회 현상을 보며 나의 유托피아적 삶을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를 되돌아보고 확인하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의미 있다. 인생의 목표가 정해지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대중문화의 복고열풍 역시, ‘나’의 목표를 찾고 세워가는데 유용한 계기가 될 수 있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 옛 ‘고도성장기’의 그들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다. 단적으로, 오늘날의 이 암흑한 사회 자체가 바로 그 그늘이다. 끝없을 것 같던 성공과 성장과 안락함 속에서 과거의 우리는 많은 정신적인 부분들을 놓쳐왔다. 치열한 경쟁 사회를 거치는 동안 승자도 패자도 마음 속에 심한 상처 한 둘쯤은 모두 갖게 된 사회, 그것이 지금의 우리 사회다. 이것을 상기하면, 오늘의 삭막한 협

실을 극복하기 위해 무언가 억눌린 자세로 죽도록 일만 하며 사는 것은 그리 바람직하지 않아 보인다. 매일, 매 순간의 삶 가운데 여유를 품고 소소하게 스미는 감정과 풍경과 관계들을 돌아보며 그것들과 함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것, 아마도 오늘의 삭막함을 치유할 수 있는 것은 이런 것들이 아닐까.

돌이켜보면 오늘날의 대중이 복고 코드에 감정이입을 하는 것은 단지 ‘과거의 성공과 성장’이라는 결과가 그리워서가 아닐 것이다. 사람들이 거기서 진짜 그리워하는 것은 그 성공과 성장 사이에 틈이 새겨져었던 ‘나’와 ‘우리’의 기쁨과 행복이 아니겠는가? 경제적으로 부유한 나라와 행복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 사이의 간극을 예로 들지 않더라도, 정신적인 부분이 불행해지면 모든 것이 무의미해지기 마련이다. 종국적인 목표는 물론이거니와 그 목표에 이르는 과정 중에도 ‘나’의 행복이 유예되거나 손상되지 않도록, 끊임없이 정신적 행복을 추구하며 사는 삶이 지금의 나와 우리 진정으로 바라고 있는 삶의 모습에 더 가까울 것이다.

모쪼록, 이 암흑한 시기를 살아내고 있는 우리의 대학생들이, 나는 어떻게 행복해질 것이라는 그 구체적인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살아가기를, 살아내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그런 당신들이 만들 미래의 우리 사회는 지금보다는 훨씬 행복이 가득한 사회이기를 바라면서.

참여마당

이정민
스페인어학(2014)

담론이 없는 곳에는 민주주의도 없다

지난 6월 서울캠퍼스를 다녀왔다. 청운관에는 총여학생회의 존재이유를 묻는 대자보가 붙어 있었다. 그 옆에는 총여학생회의 대자보가 학우의 물음에 답을 하고 있었다. 내친김에 고려대학교도 들렸다. 입구에서부터 곳곳에 대자보가 붙어 있었다. 학생회에 사과를 요구하고 또 그에 대해 사과하는 목소리, 학교를 향해 부당함을 외치는 목소리, 약자들을 위해 힘을 모으자는 다양한 목소리가 대자보에 담겨 있었다.

흔히 대학가에는 특정 사안에 대한 대학생들의 담론이 형성되어 있기 마련이다. 이런 담론장으로서 대자보는 오랫동안 그 역할을 다해왔다. 만약 해당 대학의 뜨거운 감자가 무엇인지 알고 싶다면, 학내에 붙어있는 대자보를 찾아보면 될 정도다.

그러나 필자는 1년 6개월간 국제캠퍼스에서 생활하면서 대자보를 본 건 단 한번 뿐이었다. 국제캠퍼스에 생활이 없다는 내용의 대자보였는데, 이것조차 학내에 큰 반향을 일으키지 못한 채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졌다. 그렇다고 지난 1년 6개월 동안 국제캠퍼스가 ‘평화롭게’만 지나온 것은 아니다. 지난해 총학생회 선거를 통해 당선된 ‘친KU’ 선본은 학생총투표를 통해 ‘한국대학생연합’을 탈퇴를 결정했다. 이 학생총투표에서 투표 문항이 객관적이지 않았다는 논란이 있었으나, 여론화되거나 금방 사라졌다. 대외적으로는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높은 평가를 받기 위해 우리학교는 ‘학점평균을 B0로 맞추겠다는 학교의 방침에도 목소리를 내는 학우는 없었다.

담론의 장이 형성된다면 그것이 어떤 형태이든 우리들의 권리를 더 보장받을 수 있고 더 나은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것이다

단순히 ‘대자보가 없다’나 ‘대자보를 붙일 공간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라는 문제가 아니라 이런 일이 있었음에도 학생들 사이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담론의 장’이 없었던 것이 참 아쉬웠다. 물론 요즘 ‘자기개발’만 하기도 개인에게는 벅차고 바쁜 시대다. 그동안 필자도 여느 학생과 마찬가지로 학내에서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 무관심했음을 고백한다.

학내외에 사안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기 쉽지 않을지도, 그래야 한다. ‘국민이 정치에 무관심하면 가장 저질스러운 세력의 지배를 받아야 한다’라는 플라톤의 말의 맥은 그래야 하는 수많은 이유로 꺼낼 수 있겠다. 필자는 담론형성을 통한 논의를 통해 더 나은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거라고 믿는다.

반대로 담론이 없는 곳에서는 민주주의는 힘을 발하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마땅히 나의 의견을 가져야 할 일들에 의견을 가지며, 사안에 대해 생각하고 고민하는 우리가 됐으면 한다. 사안에 대해 함께 나누고 토의하는 담론의 장이 형성된다면 그것이 어떤 형태이든 우리들의 권리를 더 보장받을 수 있고 더 나은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것이다.

▶ 1면에서 이어짐

예술가의 표현에 제약이 가해진다면 그것은 인간이 가진 꿈과 감정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다. 김수영이 언론의 자유를 위해 절규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최근에 발굴된 김수영의 미발표 원고를 보면 심지어 ‘김 일성만세’라고 표현할 수 있어야 진정한 언론의 자유가 시작된다고 썼다. 4·19 혁명 직후 쓴 그 시는 지금의 독자들에게도 충격적이다. 그가 꿈꾼 절대적 자유에 비하면 우리는 아직도 분단시대의 새장 속에 갇힌 새에 불과하다. 국가보안법이 아직도 살아있고 말도 안 되는 여러 가지 사회규범이 우리의 자유를 구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의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생각하는 것이 지식인이다. 그는 한국에서 일어나는 일은 물론이고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는 일을 자신의 문제로 받아들이고 고민했다. 그는 일체의 타협이나 위선을 배격하고 극단적인 정도로 정직성을 추구했다. 이러한 자세는 한국과 같이 사회역사적 격변

詩는 나의 닻(錨)이다.
김수영문학관
KIM SU-YOUNG MUSEUM

예술가의 표현에 제약이 가해진다면 그것은 인간이 가진 꿈과 감정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다

이 심한 나라에선 매우 불리하고 때로는 위험한 처신 방법이다. 하지만 김수영은 그러한 불리와 위협에 굴하지 않고, 자신이 생각하는 사랑과 정의를 위해 당당하게 자신의 소신을 밝혔다. 사실을 정직하게 전달하고 옳고 그름을 전후좌우의 눈치를 보지 않고 말하는 것, 이 기본적인 기능이 말살되어 있는 사회는 죽어가는 사회다. 그런 사회를 향해 “시여 침을 뱉어라”고 그는 절규했고 “시는 온몸으로 운몸을 밀고 나가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예술이 아름다운 것만을 그리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김수영의 이러한 태도는 충격이었

고 그 충격은 지금에 와서도 여전히 신선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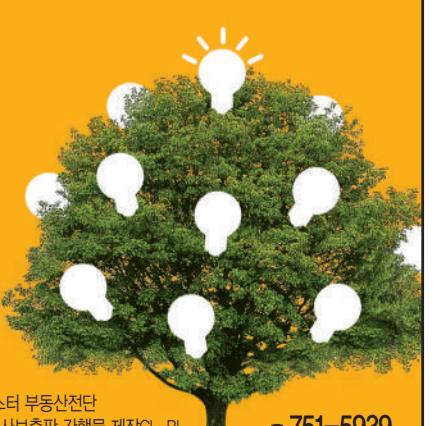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시대의 흐름에 타협하지 않고 진정한 삶의 길을 찾아가는 내면적 기울을 지킨 스승의 모습은 예나 지금이나 드물다. 그런 정신적 스승을 갈구하는 한국의 젊은 세대에게 김수영은 피해갈 수 없는 하나의 뚜렷한 이정표이자 정신적 멘토이다.

세상의 위협에 주눅 들은 젊은이들에게 당당한 호연지기를 주는 글이 김수영의 시와 산문이다. 젊은이여, 꾀죄죄한 늙은이들을 멀리하고 김수영을 읽으라.

365일, 디자인이 반짝입니다 중앙일보미디어디자인

브로슈어에서 전단, 잡지, 신문 제작, 광고물 제작까지
언제나 반짝이는 아이디어가 당신을 빛나게 해드립니다

① 중앙일보미디어디자인



광고기획 및 제작 키털로그 포스터 부동산전단
신문제작 대학학보 구청소식지 사보출판 간행물 제작 O·BI
☎ 751-5939

스포츠

럭비부, 천적 고려대 꺾고 트로피 들었다

대통령기우승

박지혜 객원기자 snaier91@knu.ac.kr

꼬박 14년만이었다. 럭비부가 지난 22일 ‘제26회 대통령기 전국 종별 럭비 선수권대회(대통령기)’ 결승전에서 고려대를 34-20으로 꺾고 우승컵을 들어올렸다. 2011년 이후로 최근 4년간 고려대를 상대로 단 한 번도 승리를 거둔 적이 없기에 더욱 뜻 깊은 우승이었다.

특히 대통령기 우승은 럭비부 박용돈(체육학 1999) 코치가 재학 중이던 2001년이 마지막이었다. 코치로서 처음으로 우승한 박용돈 코치는 “모교에 코치로 부임한 지 3년 만에 거둔 첫 우승이어서 더욱 기쁘다”라며 “다음 대회인 전국체육대회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소감을 말했다.

대학부에는 ‘2015 코리안럭비리그’ 1차전에서 상위성적을 거둔 4팀(고려대, 경희대, 단국대, 연세대)가 참가하기로 결정됐으나, 단국대가 불참을 선언함에 따라 세 팀만 참가했다. 우리 학교는 부전승으로 결승에 직행해 연세대를 이기고 올라온 고려대를 상대하게 됐다. 고려대는 명실상부 현 대학 럭비 최강자로서 2015년 들어 무패 행진을 달리고 있었다. 고려대와의 경기는 지난 4월 11일 ‘2015 코리안 럭비리그’ 1차전에서 26-34로 석패한 이후 약 3개월 만이다.

경기 시작은 순조로웠다. 전반 5분 주장 한상훈(스포츠지도학 2012) 선수의 페널티킥 성공으로 선취점을 낸 데 이어 10분에는 트라이까지 성공시키며 8:0으로 앞서 갔다. 그러나 잇따라 고려대에게 트라이와 페널티킥을 내주며 역전을 허용하고 말았다. 재역전의 기회를 틈틈이 노렸으나 죽박한 시간 끝에 결국 8-15로 전반전을 마무리했다.

경희의 드라마는 후반전부터였다. 초반 고려대 김승선이 10분간 퇴장을 당하며 수적으로 우리에게 상황이었다. 여세를 몰아 전반 9분 허재준(스포츠지도학 2013) 선수와 전반 19분 박명우(스포츠지도학 2012) 선수가 연달아 트라이를 성공, 20-15를 만들며 역전에 성공했다.

포워드와 백스의 호흡이 특히 눈에 띄었다. 지난 2015 코리안 럭비리그에서 다소 맞지 않는 호흡을 보이던 것과는 달라진 모습이었다. 포워드의 픽엔고(Pick and Go) 전략이 적중했고, 힘 싸움에서도 밀리지 않았다. 백스의 활약 또한 그에 뒤지



* 럭비의 득점

- 트라이 : 상대방 골라인 바깥쪽까지 공을 갖고 가서 바닥에 찍는 것, 5점
- 컨버전 골 : 트라이 성공 시 추가 킥 기회가 생긴다. 이 때 공을 차서 득점하는 것, 2점
- 드롭 골 : 경기 중 공을 차서 득점하는 것, 3점
- 페널티 골 : 상대팀이 반칙을 하면 반칙당한 위치에서 공을 차서 득점하는 것, 3점

지 않았다. 평소 고려대 백스의 스피드에 맥을 못 추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20-20으로 균형을 맞추고 있던 경기 중반, 우리 학교 인 골(In goal) 코앞까지 돌파를 허용하며 자칫 역전을 당할 뻔한 상황에서 한상훈과 교체되어 들어온 한동훈(스포츠지도학 2013) 선수가 몸을 날린 강력한 태클로 득점을 저지했다. 가히 이날의 최고 명장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트라이 세이빙 태클(Try saving tackles)이었다.

이후 이진용(스포츠지도학 2012) 선수와 허준수(스포츠지도학 2013) 선수가 연속해서 성공시킨 트라이와 컨버전킥으로 14점을 더 보태며 최종 점수 34-20으로 우승의 축포를 쏘아올렸다. 럭비부는 짧은 휴식을 가진 뒤 일본 류가사카로 전지훈련을 떠나 일본 유통경제대학 럭비부와 연습 경기를 가지는 등 10월에 있을 제96회 전국체육대회 준비에 매진할 예정이다. 이하 한상훈 주장과의 일문일답.

- 우승을 축하드린다. 어떤 마음으로 결승전에 임했나?

“결승을 앞두고 훈련이 유독 더 힘들었다. 솔직히 객관적으로 보면 우리가 고려대보다 많이 밀리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 차이를 어떻게든 좁히기 위해 훈련과 노력을 몇 배로 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경기 시작 전에 긴장을 많이 했는데 한편으로 앤돌핀 때문인지 묘한 흥분 같은 것도 있었다. 우승할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다. 시작하기 직전 선수들에게 ‘미친개처럼 뛰어다니자’라고 했다.(웃음) 이 날은 말 그대로 재미있게 경기를 뛰었다. 선수들 모두 열심히 하려는 모습이 보여서 뿐만 아니라 동기부여도 했고, 이번 대회에선 단합이 정말 잘 됐다. 서로간의 믿음과 단합이 우승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었던 것 같다.”

- 고려대에게 승리한 것이 4년만이다. 주장으로서 감회가 더 남다를 것 같은데.

“고등학생 때는 우승도 많이 경험했었는

데, 입학한 후에는 연세대와 고려대에 번번이 패배해서 우승한 적이 없었다. 나쁜 아니라 동기부여를 모두 졸업하기 전에 두 학교에 승리하는 것이 작은 소망 같은 것이다.

경기가 끝나고 우승이 확정됐을 때 기분이 너무 좋아서 밀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또 주장 직을 맡게 된 때 승리를 거두게 돼서 기쁨이 더욱 크다.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이다.”

- 선수단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힘든 운동을 불평 한마디 없이 나를 믿고 잘 따라와줘 정말 고마운 마음뿐이다. 어느덧 주장을 맡게 된 지도 반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많이 서투르다고 생각한다. 남은 임기 동안 더 좋은 주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조만간 일본으로 전지훈련을 떠난다. 열심히 담금질하고 돌아와 10월에 있을 전국체전 때는 더 놀라게 해드릴 것이다.”

2015 광주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총 11개 메달 획득

우리학교 출전선수 메달 결과

장연수 기자 ys0501994@knu.ac.kr

지난 14일 막을 내린 제28회 ‘2015 광주하계 유니버시아드’에서 우리학교 선수들이 금메달 4개, 은메달 6개, 동메달 1개 등 총 11개의 메달을 획득했다. 국제대학 스포츠 연맹이 주관하는 유니버시아드 대회는 대학생 종합 운동경기대회로, 이번 대회에는 전 세계 143개 국가에서 1만 3,000여 명이 참가했다.

우리학교 선수들이 두각을 나타낸 종목은 단연 태권도였다. 단체전에서 금메달 4개, 개인전에서 은메달 2개를 얻었다. 특히 품새 종목에 출전한 선수들 모두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최지은(태권도학 2012) 선수는 여자 단체 품새에서, 장세훈(태권도학 2009) 선수는 남자 단체 품새에서 금메달을 획득했고, 이재희(태권도학 2012) 선수는 혼성 단체 품새에서 금메달을 따냈다. 김현승(태권도학 2013) 선수는 태권도 경기의 마지막 날인 지난 13일에 나이지리와의 경기에서 남자 단체 겨루기 종목 금메달을 거뒀다.

2016 KBO 신인드래프트에서 한화의 1차 지명을 받은 김주현(스포츠지도학 2012) 선수가 참가한 야구는 준결승에서 대만과 붙었지만 2:0으로 아쉽게 동메달을 얻는 것에서 그쳤다. 그러나 양궁과 기계체조에서는 각각 기보배 선수와 양학선 선수와 합심하여 단체전 은메달을 거머쥐는 데 성공했다. 강채영(스포츠지도학 2015) 선수는 양궁 여자 단체전에서, 조영광(스포츠지도학 2012) 선수는 기계체조 남자 단체전에서 은메달을 획득했다. 강 선수는 “노력한 만큼 결과가 나오지 않아 아쉽다”며 “곧 있을 세계양궁선수권대회를 시작으로 더 좋은 성적을 보여드리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유니버시아드 경기 일정이 거의 막바지였던 13일, 대한민국 남자 축구 팀이 이탈리아를 상대로 은메달을 획득했다. 이로써 우리학교 선수들이 우리나라의 종합우승에 크게 기여했다.

메달	이름
금(4)	김현승 이재희 최지은 장세훈
은(6)	강채영 고승범 김빛나 류대한 유현지 조영광
동(1)	김주현



한 박자 빠른 소식을 원한다면
각종 뉴스의 링크서비스를 받고 싶다면
기자들의 취재단상이 궁금하다면
제보하고 싶은데 어디다 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내일의 날씨와 같은 소소한 정보까지 얻어가고 싶다면

주저말고 지금,

**대학주보와 친구가 되어 주세요
SNS에서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khunews@knu.ac.kr
<http://media.knu.ac.kr/khunews>